

# '밥 맛 별로' 칼로스 쌀 4차 공매서 낙찰률 '0'

우리 식탁을 위협할 것으로 예상됐던 미국산 칼로스 쌀의 기세가 한풀 꺾였다. 칼로스쌀은 26일 진행된 밥쌀용 수입쌀 4차 공매에서 입찰 물량이 전혀 팔리지 않아 낙찰률 0%를 기록했다.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이날 미국산 1등급 칼로스 쌀 918에 대한 공매를 실시했으나 응찰업체는 1개사에 불과했고 그나마 가격이 최저 예정가에 못 미쳐 유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4차례에 걸친 공매에서 낙찰률은 1차 2.9%, 2차 22.7%,

3차 10.5%를 기록했으나 입찰물량이 완전히 유찰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밥맛이 별로라는 입소문이 퍼진데다 특별히 낙찰물량을 늘리기 위한 보완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현재 공매 참여자격 제한 완화 등 보완책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유통공사는 매주 한차례씩 수입쌀을 공매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unipark@

## "외환자유화 조기 시행 검토"

### 박병원 재경부 제1차관

박병원 재경경제부 제1차관은 26일 "기존의 외환자유화 일정을 재검토해 보다 앞당겨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한국투자증권 주최로 열린 '국내 성장사를 기업설명회'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기업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남아있는 외환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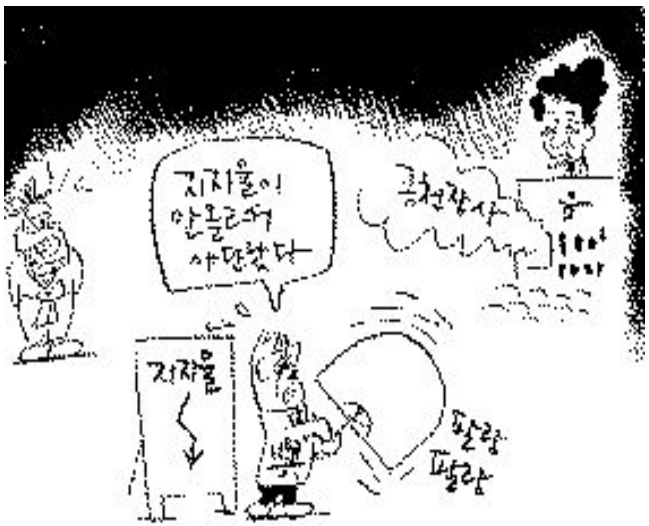
그는 "외환자유화는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를 확충하고 수급불균형을 완화함으로써 외환시장의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어 "국내에 투자한 대부분의 외국자본은 일자리 창출과 생산할 세금납부를 통해 한국 경제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면서 "외국자본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국내자본에 비해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대기자 jilee@kwangju.co.kr

## 빛의만평

- 김중두



그 방법 밖에 모르십니까?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가 26일 담양군 고서면 주산리 예술 창작 마을에서 놀이패 '신명' 단원들과 함께 북을 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일~쑈'... 북치는 버시바우

<주한 美대사>

### 담양 고서서 '신명' 단원들과 흥겨운 '북 수업' 수준급 드러머, 열정의 연주에 '박수갈채'

북채를 잡은 파란 눈의 고수(鼓手)는 영락없이 친근한 우리네 이웃의 모습이였다. 드림치는 외교관으로 유명한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가 26일 오전 담양군 고서면 주산리 예술 창작 마을에서 놀이패 '신명' 단원들과 함께 우리나라 전통 악기인 북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길고 날씬한 드림 연주용 스틱 대신에 두툼한 북채가 웬지 어색한지 버시바우 대사는 처음엔 박자를 놓치기도 했으나 이도 잠시, 서서히 드러머의 숨은 실력을 뽐내기 시작했다.

버시바우 대사의 '특별 과외'를 맡은 상쇠 김호준(36)씨의 추임새에 따라 어깨를 들썩이기도 하고

"일쑈"를 힘껏 외치며 마냥 흥겨운 듯 연신 입가에 웃음을 잃지 않았다.

버시바우 대사의 연주를 지켜본 관계자들은 "보통이 아니네, 참 잘하네"를 연발하며 그의 연주실력에 박수갈채를 보냈다.

20여분의 짧은 시간동안 진양조에서 휘모리 장단까지 섭렵(?)한 그는 "공연을 볼 때는 위위보였는데 직접 해보니 보는 것만큼 쉽지 않았다"며 "단원들과 함께 연주할 수 있어 즐거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버시바우 대사는 "외교관이라는 직업상 바쁘기 때문에 힘들겠지만 만약 시간이 된다면 북을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부인 리사 여사와 함께 한 버시

바우 대사는 이에 앞서 창작마을에 입주해 있는 천연 염색공방과 공예방을 둘러 공예품을 감상하고 놀이패 신명 단원들의 공연도 즐겼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날 호남대 산캠퍼스 미국학 연구소 영어교육원을 방문, 학생들과 점심을 함께했으며 무등도서관 아메리칸 코너를 들르는 것으로 오후 일정을 마쳤다. 취임 이후 광주를 처음 방문한 버시바우 대사는 27일 오전 경남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버시바우 대사는 미국 예일대 졸업 후인 1977년부터 외교관 생활을 시작했다. 1994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대통령 특별보좌관과 2001년 주 러시아 대사관을 거쳐 지난 해 10월 주한 미국대사로 부임했다. 미국 국무부에서 손꼽히는 러시아·유럽 문제 전문가이자 역대 주한 대사 가운데 최고 거물급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진만기자 man21@kwangju.co.kr

# '노인산업' 특화사업 육성

### 광주시-한국기초과학지원원 협약 30만평 '첨단의료 클러스터' 구축

광주시가 노화연구 및 기반구축 등 노인건강 산업을 지역특화사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26일 "21세기 성장동력 산업인 노인건강산업 육성을 위해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과 이날 노화연구 및 기반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 내용은 노화 연구개발 및 장비구축 상호 협조를 비롯 연구성과의 실용화와 산업화·창업지원·인력양성 등이며, 기초원 광주센터내 노화연구사업단 설치·운영된다.

시는 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고부가가치와 산업화가 가능한 광응용 전자기기 개발센터와 국제저과산업기술센터 건립 등 의료 관련 인프라 구축에도 힘을 쏟는다.

또 광주 남구 노대동에 건립을 추진중인 빛고를 실버타운 인근에 가정 '국립장수과학연구소' 유치도 추진하

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2010년까지 중·장기적으로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 30여만평에 '첨단 의료산업 클러스터단지'를 구축, 노인건강산업을 비롯 치과산업, 건강·의약품 산업, 의료기기 관련 업체 유치 등에도 나설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조만간 국내외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 산·학·연·관이 모두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2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은 노인인구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11.8%)이며, 노인성 질환자와 질병 사망률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등 노인건강산업 육성이 절실한 곳이다. 시는 노인건강산업 육성이 생물(전남)산업과 바이오(전북)산업 등과 연계, 호남권 의료산업 3각 클러스터 구축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2010년 독성·부작용 줄인 '천연물 신약' 6개 이상 개발

### 과학기술 관계장관회의

우리나라가 2010년까지 독성과 부작용이 적은 천연물 신약을 6개 이상 개발, 세계 7대 천연물 연구개발(R&D) 국가로 부상한다. 정부와 민간이 2010년까지 뇌졸중 등 허혈성 질환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고, 2009년까지는 '디지털 액터' 기술을 활용한 블록 버스터급 영화 2편을 제작한다.

정부는 26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주재로 제15회 과학기술관

계장관회의를 열어 '천연물 신약 연구개발' 촉진계획안 등 5개 안건을 심의, 공식 확정했다. 정부는 서양의학으로 치료하기 어려운 만성·난치성 질환 치료를 위해 우선 2010년까지 천연물 신약 6개 이상을 개발, 전세계 천연물 의약품시장 점유율을 1%에서 2%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1천677억원을 투입하고, 남북한 천연물 연구교류를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기로 했다.

/이종대기자 jilee@kwangju.co.kr

## 독도·해저지명 선점 위한 국제기구서 목소리 높인다

### 정부 6월 獨 IHO 해저지명 소위 참석키로

정부는 독도 및 해저지명을 둘러싼 갈등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관련 국제기구에서 목소리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관련기사 5면>

26일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해양조사원 등에 따르면 조사원과 정부 당국자들은 오는 6월 독일에서 열리는 국제수로기구(IHO) 해저지명소위원회

회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 해저지명소위원회 위원국으로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조사원 관계자는 "그동안 해저지명소위원회에 민간 학계 등에서 옵서버로 참석했으나 올해 처음 정부 차원에서 참석, 발언 기회를 얻어 해저지명소위원회 위원국 참여 의사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IHO 해저지명소위원회는 현재 일본 대표를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만장일치로 해저지명접 등재 여부 등을 결정하고 있다.

/최진만기자 man21@kwangju.co.kr

## 노대통령 내달 7일 출국 몽골 등 3개국 공식방문

노무현 대통령은 내달 7일부터 10일까지 몽골을 국빈방문하고, 이어 10일부터 14일까지 아제르바이잔,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을 공식방문한다고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이 26일 발표했다.

노 대통령은 몽골 국빈방문 기간 남바린 옹흐바야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자원 및 IT 분야 등의 양국간 실질협력 증진방안, 북핵문제와

한반도 정세, 국제무대의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노 대통령은 이어 내달 10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아제르바이잔을 공식방문, 일함 알리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카스피해 원유·가스 공공개발사업 참여, 교역 투자 확대 등을 논의하며 양국간 전면적 협력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노 대통령은 12~14일 아랍에미리트 방문, 셰이크 칼리드 빈 자에드 알 나흐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큰 생각, 큰 행동, 큰 꿈이 있는 海圓

철강산업의 새로운 역할을 꿈꾸는 해원과 더불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자 하는 능력있고 패기있는 분을 모십니다!

### 1. 모집부서 및 자격요건

구분	모집부서	자격요건	채용인원
경력직	CEO	-대기업 근무경력 20년이상인 분으로 영어회화 가능하신 분	0명
	관리/기획부서	-경영전략, 사업기획, 신규사업 추진업무 경력에 있는 분 -회계/자금분야 경력 5년 이상인 분(상장사 및 IPO경력자 우대)	00명
	해외영업부서	-자동차 부품 및 철강 관련업계 경력 10년이상인 분으로 영어가 유창한 분 -금융소재 건축 내/외장재 영업경력에 있는 분으로 영어가 유창한 분	00명
	기술부서	-은, 동, 스테레스 등 도금 및 표면처리 관련업계 경력에 있는 분 -물랭크, 파이프, 열강금속 및 건축 내/외장재 설계, 제조, 용접 등 경력에 있는 분	00명
신입직	국내영업부서	-4년제 대학교 졸업자로 전공불문하며 영어회화 가능한 분은 우대	00명

### 2. 공통자격

- 신념과 열정이 있는 분
- 전 부문 컴퓨터 사용이 가능하고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분

### 3.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영문 자기소개서(해외 영업부서 지원자에 한함)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추가 관련서류 제출
  -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 4.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

### 5. 접수방법 및 기간

- 접수방법: 우편, 이메일
- 접수마감: 2006. 5. 2까지

### 6. 기타사항

- 서류전형 및 면접 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합니다.
- 이력서 우측상단에 응시부서, 희망근무지, 희망연봉 반드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기소개서는 경력, 실적(연구실적 포함) 중심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근무처는 업무에 따라 서울 및 수도권, 지방(광주광역시, 전남 순천시)에서 근무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및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채용을 취소합니다.
- 기타 회사소식은 당사 홈페이지 www.hwst.co.kr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7. 채용문의

- 전 화: 062)958-7033, E-MAIL: euroh@lycos.co.kr
- 주 소: 우)506-253 광주광역시 광산구 오산동 546-7번지 해원에스티(주) 관리팀 인사담당